

2021년 3월 21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예수님의 장사 The Burial of Jesus Christ
마가복음 Mark 15:42-47

42.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And when evening had come, since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Joseph of Arimathea, a respected member of the council, who was also himself looking for the kingdom of God, took courage, and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should have already died. An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whether he was already dead.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And when he learned from the centurion that he was dead, he granted the corpse to Joseph.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And Joseph bought a linen shroud, and taking him down, wrapped him in the linen shroud and laid him in a tomb that had been cut out of the rock. And he rolled a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 saw where he was laid.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장사될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묘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를 묘사하는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1.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새로 판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그는 산헤드린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3. 그는 존경 받는 자였습니다.

4.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12명으로 잡습니다. 그 안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등 세 명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더 넓게 잡으면 120명, 혹은 500여 명 등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120명 혹은 500여명에 들거나,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든 “제자들”에 속했습니다.

5.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묘실에 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묘실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빌라도의 관용 등이 연합하여 이런 “선”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이사야 Isaiah 53:9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Nicodemus also, who earlier had come to Jesus by night, came bringing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 five pounds in weight.

요한복음 John 19:39

예수님께서 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을까요?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무슨 중요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의 해석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어 믿는 자들에게 뚜렷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의 경우, 무덤이 없이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산과 감람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기드론골짜기, 그 기드론골짜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힌놈골짜기는 주로 가난한 자들의 시체를 태우는 노천무덤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언제나 시체를 태워서, 거기서 나는 불과 연기가 “게헨나” 즉,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이처럼 힌놈골짜기에 던져지고 불태워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어주셨겠지요.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빈 무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신들이 없이, “새 무덤”이며 “부자의 무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에 사용된 귀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말씀을 묵상합니다.

42.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And when evening had come, since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Joseph of Arimathea, a respected member of the council, who was also himself looking for the kingdom of God, took courage, and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것이 어떤 뒷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세속적인 사람인 빌라도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should have already died. An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whether he was already dead.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었고,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냐?

그가 물었습니다.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And when he learned from the centurion that he was dead, he granted the corpse to Joseph.

백부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And Joseph bought a linen shroud, and taking him down, wrapped him in the linen shroud and laid him in a tomb that had been cut out of the rock. And he rolled a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이제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릴 때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2년 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 당시의 무덤들을 여럿 방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교정에 보존되어 있는 몇 개의 무덤에는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 saw where he was laid.

예수님을 둔 곳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을 본 증인들입니다.

무덤에 계셨던 3일을 깊이 묵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 사건이 있습니다(마태복음 16:1-4).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였습니다(마태복음 15:32-39).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청했습니다.

사천 명 먹이신 사건은 오천 명 먹이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인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양식”으로 허락하신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shall not hunger. And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요한복음 John 6:35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표적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지혜가 있으면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For Jews demand signs and Greeks seek wisdom,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lly to Gentile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2-23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wisdom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4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And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
마태복음 Matthew 16:4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은 세상에 선포하시는 “표적”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품은 표적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servant, being born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even death on a cross.
빌립보서 Philippians 2:6-8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Therefore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빌립보서 Philippians 2:9-11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표적이 되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부활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부활에 집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음에 이르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의 한 토막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은, 그분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던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구원사건”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Indeed, under the law almost everything is purifi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히브리서 Hebrews 9:22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If any one of the house of Israel or of the strangers who sojourn among them eats any blood, I will set my face against that person who eats blood

and will cut him off from among his people. For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for you on the altar to make atonement for your souls. For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by the life.

레위기 Leviticus 17:10-11

히브리서를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gate in order to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히브리서 Hebrews 13:12

우리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본래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s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금문교회 모든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건물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양손으로 받아낸 사람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불에 던지는 자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up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3

참 사랑이 문제입니다.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육신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 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 받기 원하네.
While the souls of men are dying, For a little bit of love. While the children, too, are crying. For a little bit of love.
찬송가 503장 4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요한일서 1 John 4:19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죽음이 결국 시간문제라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으로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John 11:25-26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 사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사흘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The some of the scribes and Pharasees answered him, saying, “Teacher. We wish to see a sign from you.” But he answered them,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just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so will the Son of Man will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마태복음 Matthew 12:38-39

이것으로써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었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게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지켜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증거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증거 합니다. 특히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그분이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kin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6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찬입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희가 겸손히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